

# '올해의 관광도시' 강진군 추석연휴 내내 관광객 복직

연휴기간 동안 4만여 명 관광객 다녀가



'남도답사 1번지 강진'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관광객으로 인산 인해를 이루었다. 군 관계자는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4일간의 연휴 기간 동안 4만여 명의 관광객이 강진을 찾았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차별화된 콘텐츠와 방문객 맞이 행사를 추진하여 오

랜만에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에 와 처음 기거한 사의재 주막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저잣거리를 재현해 놓은 '사의재 저잣거리'에는 연휴 기간 동안 무려 2천여 명이 몰렸

다. 옷놀이, 널뛰기 등 전통놀이 마당과 떡메치기 체험, 경품행사가 진행되었으며 군민 배우들이 참여하는 인물 재현 마당극인 조만간(조선을 만난 시간)을 비롯해 풍물 공연과 명창공연, 탈춤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제공되었다. 마량 미항, 가우도 등 주요 관광지에는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줄을 이었다. 특히 강진만 생태공원은 지난해 대비 2천600여 명이 증가한 4천600여 명이 방문하였다. 김학동 관광과장은 "강진을 찾는 방문객들의 재방문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군이 갖고 있는 뛰어난 관광자원과 문화유산을 접목시켜 특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가겠다"며 "실시간 SNS 홍보 등 마케팅에도 총력을 기울여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 무안군, 양파 안정적 판매망 구축

양파의 고장 무안군이 17일 무안양파 소비촉진 및 안정적공급 판매 활성화를 위해 농업회사법인 팜에이트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라 무안군은 우수 농산물 관련 각종 정책 및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농업회사법인 팜에이트는 무안군에 연간 무안양파 1만 톤의 수급 및 판매를 지원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무안 양파를 대체산지로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할 뿐만 아니라 무안군에 스마트팜의 구축, 기술 및 농산물 매입등을 지원하여 무안군과의 상호



공동의 이익을 위해 무안 농산물을 사용하여 제품의 판매 증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 장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개 사업 선정

장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북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비롯, 국비 29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2억 원 규모의 2개 신규 사업이 선정됐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의 기초인프라 투자 및 특화발전 위한 지역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농촌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공모방식으로 추진된다.

장성군은 지난 2월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시군역량사업 공모를 신청하고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부 평가를 거쳤다. 평가 결과 ▲북일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국비 28억 원) ▲시군역량사업(국비 1억4천만 원) 등 총 2개 세부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29억여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선정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군의 체계적인 준비로 이뤄졌다. 장성군은 공모선정을 위해 지난해 사업지구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주민 역량교육, 현장포럼,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여 지역민의 공감과 유도를 하고 역량강화에 힘쓰는 등 공모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이번 공모 선정은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뤄진 성과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면서 "공모에 선정되기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한 만큼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성=박종영 기자

## 함평군, 전직원 대상 아동학대예방 신고의무자 교육

함평군은 18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재영상관에서 군 소속 직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올해 초 개정된 아동복지법(2019.1.1.) 시행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연1회 이상(1시간 이상) 의무화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사전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본 교육은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한지혜 관장이 강사로 나서 아동학대의 이해와 유형, 신고방

법 등을 사례 위주로 전달했다. 특히 아동학대 행위자의 77%가 외부 신고가 어려운 부모인 것을 감안해 아동학대 징후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함평=조대호 기자



## 진도군, 책 읽기 즐거움 교육 과정 운영

슬로리딩하브루타지도사 자격 취득 과정

진도군이 책 읽기의 즐거움과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과정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 18일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군 철마도서관에서 군민 20명을 선착순 모집, 슬로리딩하브루타지도사 2급 과정을 도서관 3층 시청각실에서 지난 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 오는 10월 15일까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지난 8월 초등학교 저학년

20명 대상으로 '하브루타 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여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등 참여교육을 통해 자신감과 창의성을 기르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진도군 문화예술체육과 철마도서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들이 도서관을 이용,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규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성용 기자

## 완도군, '찾아가는 노인 대학' 개강식 가져

완도군과 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에서는 지난 17일 신지문화센터와 18일 약산면사무소에서 '찾아가는 노인대학' 개강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개강식은 수강생 어르신 9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강의 및 레크리에이션과 해양치유산업 특강으로 진행됐다. 현재 완도군은 노인대학 5개소(군노인회, 금일, 노화, 고금, 완도제일교회)를 운영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특수 시책 사업으로 2개 읍·면(신지, 약산)에서 노인대학을 개설하게 됐으며, 앞으로 4개월 간(9.17~12.18) 월 1회 교양 강좌와 외부 강사 초청 특강, 건강 등 다양한 교육을 마련해 어르신들의 여가 선용과 건강 유지 관리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우철 군수는 "노인대학의 프로그램을 통해 삶에 활력을 얻으시고, 100세 시대인 만큼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 영암군,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 보고회

공무원 30여 명 참석

영암군은 지난 17일 군청 남산실에서 전동평군수 주재로 실과소장 및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7개 분야 세부사업의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예

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집중 점검했다. 공약사업 중 치매안심센터 및 재활치료센터 신축, 벼 건조·저장시설(DSC) 확충, 천원버스 중·고등학생 요금인하 등 10개 사업을 완료하여 순탄하게 공약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평이며, 나머지 48개 공약사업 역시 꼼꼼하

고 내실있게 챙겨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을 100%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동평 군수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 실천계획 평가 최고등급(SA) 선정 성과를 바탕으로 군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 군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군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